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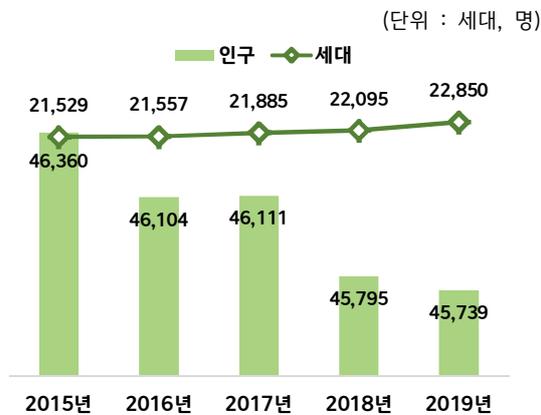
2020 주요결과 요약

- 1 인구
- 2 공통
- 3 전라남도
- 4 장성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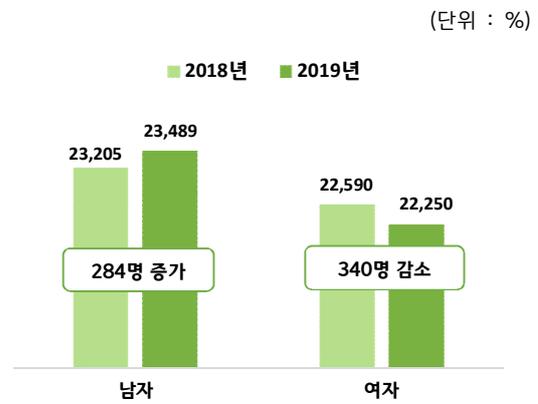
1. 인구

- ▶ 2019년 장성군 주민등록인구는 45,739명으로 2015년 대비 621명(1.35%) 감소하였고, 2018년 대비 56명(0.12%) 감소함. 세대수는 22,850세대로 2015년 대비 1321세대(5.78%) 증가하였고, 2018년 대비 755세대(3.30%) 증가함.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 남녀 인구 구성비는 남자가 51.4%, 여자가 48.6%로 조사됨. 남자는 23,489명으로 2018년(23,205명) 대비 284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2,250명으로 2018년(22,590명) 대비 340명 감소함

<< 세대 및 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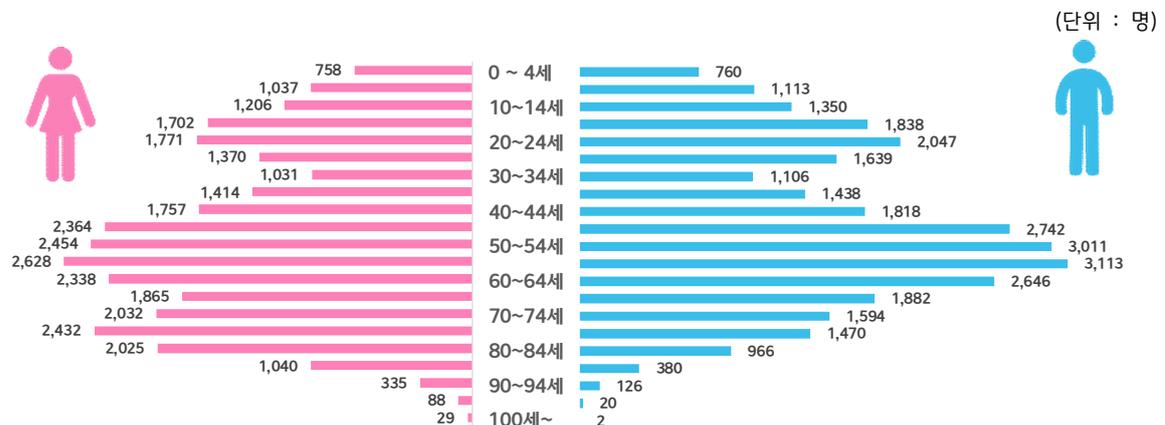


<< 남녀 인구 구성비 >>



- ▶ 2019년 장성군의 연령별 인구는 ‘0~9세’(3,090명), ‘10대’(3,468명), ‘20대’(4,749명), ‘30대’(4,030명), ‘40대’(5,789명), ‘50대’(7,689명), ‘60대’(6,869명), ‘70대’(6,034명), ‘80대’(3,572명), ‘90세 이상’(494명)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별로 40대 이하인 남자(11,733명, 25.6%)가 여자(9,393명, 20.6%)보다 많으며, 50대 이상은 남자(11,756명, 25.7%)보다 여자(12,857명, 28.0%)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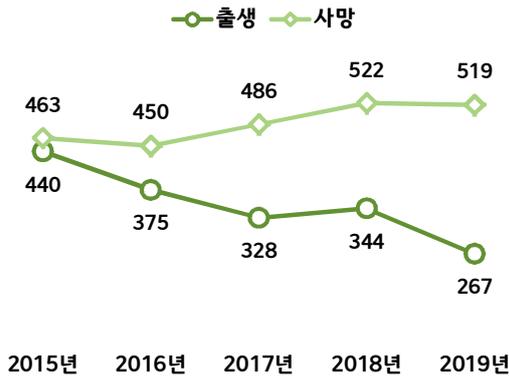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



▶ 2019년 출생 수는 267명으로 2018년 출생 수인 344명 대비 77명 감소하였고, 2019년 사망 수는 519명으로 2018년 사망 수인 522명 대비 3명 감소함. 2019년 자연증가율은 -5.5%로 2018년 대비 1.6%p 감소함. 자연증가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 인구성장률은 2018년 대비 0.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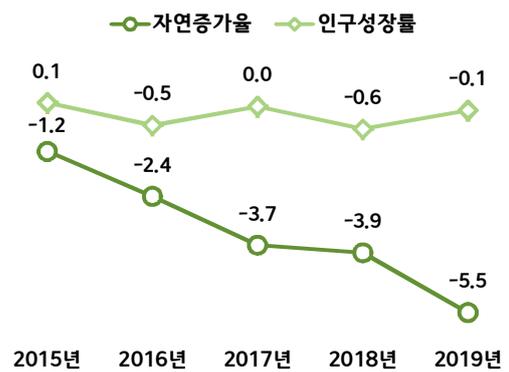
« 출생 및 사망 »

(단위 : 명)



«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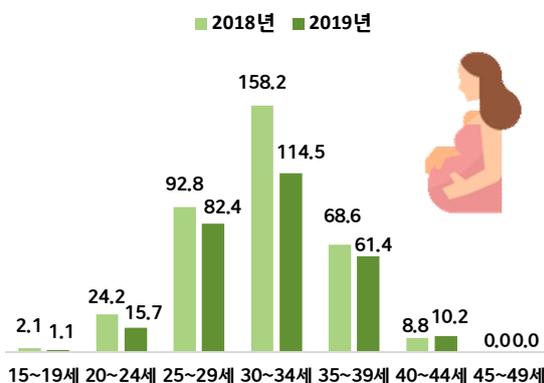
(단위 : %)



▶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母)의 연령은 ‘30~34세’(114.5명)로 나타남. 연령별 출산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5~29세’는 10.4명 감소, ‘30~34세’는 43.7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를 보임. 합계출산율은 2019년 1.429명으로 2018년(1.778명) 대비 0.349명 감소함. 2015년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율이 2018년에 잠시 증가했다가 2019년에 다시 감소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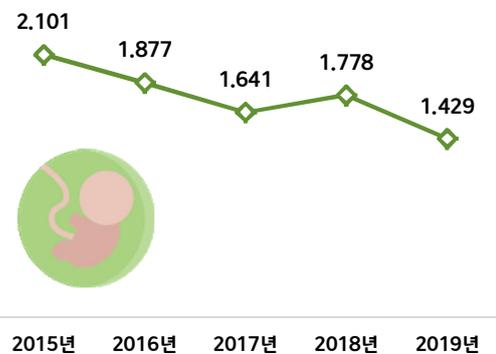
«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8년, 2019년) »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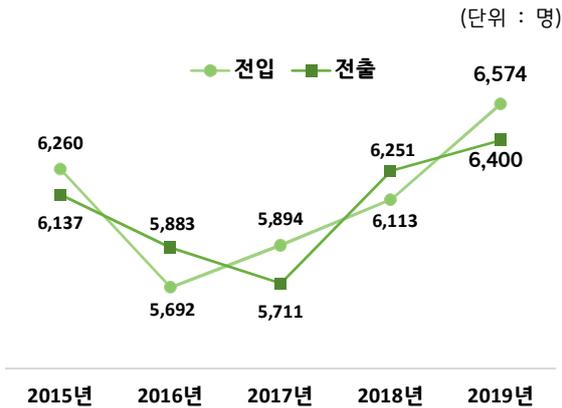
« 합계 출산율 »

(단위 : 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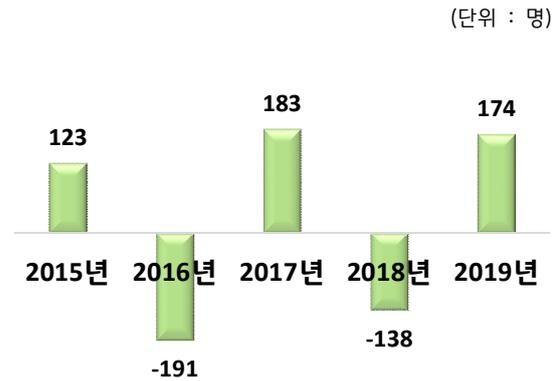


▶ 2019년 전입인구는 6,574명으로 2018년(6,113명) 대비 461명 증가하였고, 2019년 전입 인구의 이동률은 14.4%로 2018년 13.3% 대비 1.1%p 증가함. 2019년 전출인구는 6,400명으로 2018년(6,251명) 대비 149명 증가하였고, 2019년 전출인구의 이동률은 14.0%로 2018년 13.6% 대비 0.4%p 증가함. 2019년 순이동은 174명 순유입으로, 2018년 138명 순유출 보다 312명 증가함

« 전입 및 전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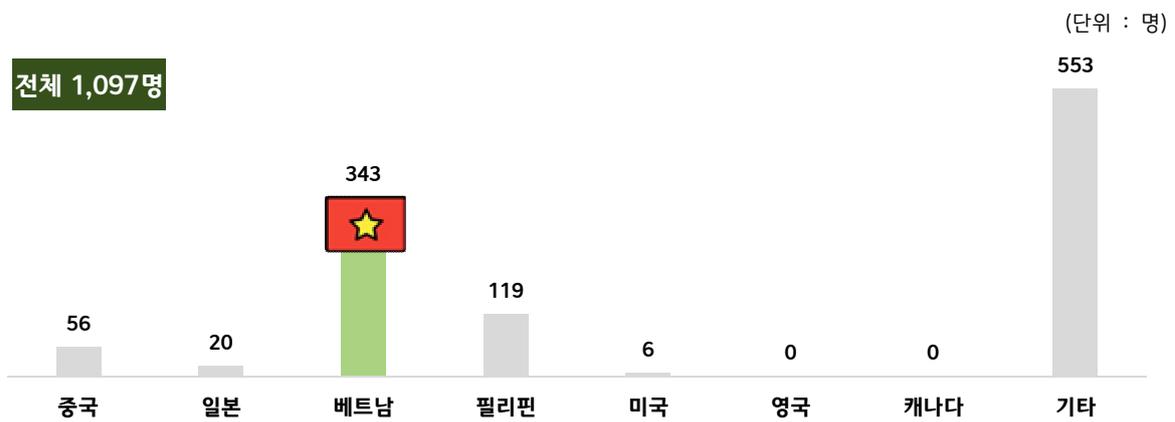


« 순이동 추이 »



▶ 2019년 외국인 인구는 1,097명으로 2018년(1,105명)보다 8명 감소함. 국적별로 베트남이 343명, 필리핀이 119명, 중국이 56명, 일본이 20명 순으로 나타남

« 국적별 외국인 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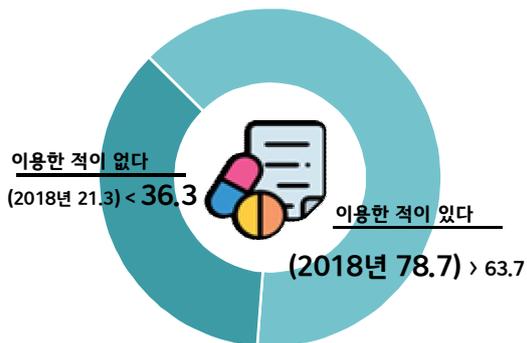


2. 공통

- ▶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와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는 모두 6.3점으로 동일함. '행복 빈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6.2점이고, '걱정 빈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남
- ▶ 의료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3.7%이며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군민은 36.3%임. 의료 기관 월 평균 이용 횟수는 2.4회이고, 주로 이용한 곳은 '의원' 59.8%, '병원' 25.1%, '한방병·의원' 6.0%, '치과 병·의원' 4.8% 등으로 나타남. 2020년 의료 서비스 '만족' 비율이 42.0%로, 2018년 '만족' 비율인 68.3%보다 26.3%p 하락함. 불만족 이유로는 '진료대기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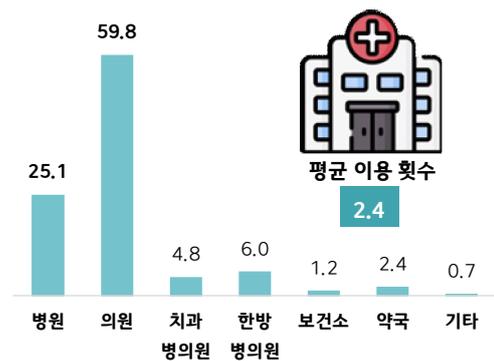
◀ 의료 서비스 이용 비율 ▶

(단위 : %)



◀ 이용한 의료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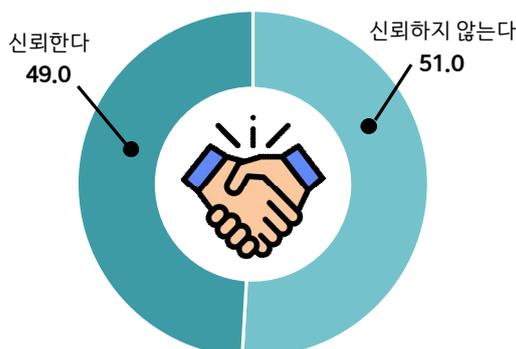
(단위 : 회, %)



- ▶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완전히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49.0%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한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일반인에 대한 신뢰(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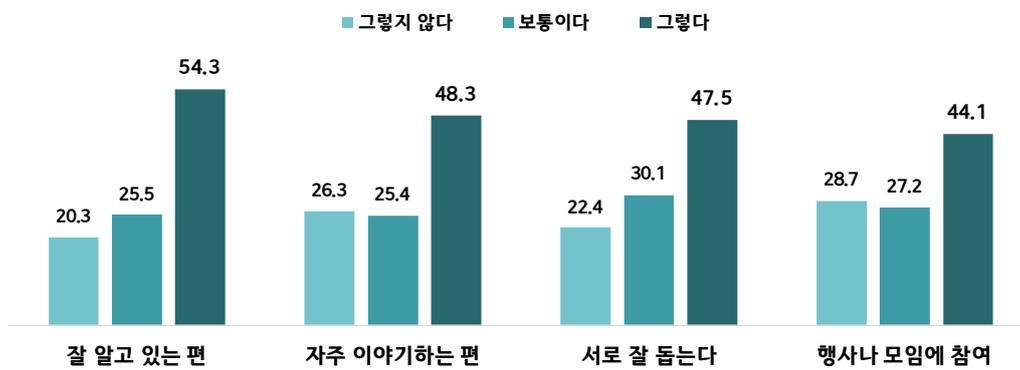
(단위 : %)



-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이고, 평균 4.3명이라고 응답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54.3%로 나타남.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8.3%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에 대한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7.5%로 나타남.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4.1%임

<< 공동체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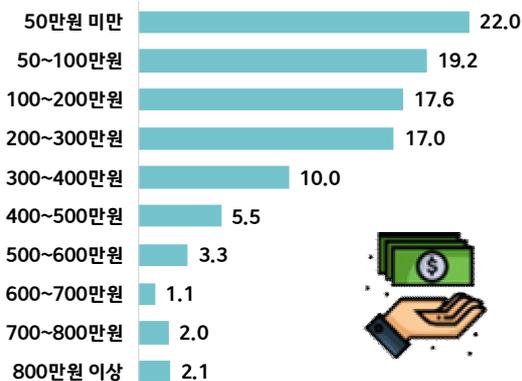
(단위 : %)



-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이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임
- ▶ 「월평균 총 가구 소득」으로 200만원 이상 비율이 2018년에는 41.6%, 2020년에는 41.2%로 조사됨.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남자가 51.1%, 여자가 15.7%로, 남자가 35.4%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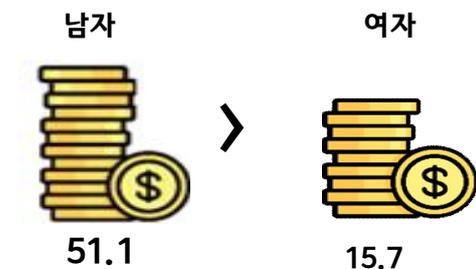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2020년) >>

(단위 : %)



<< 가구 월평균 소득(성별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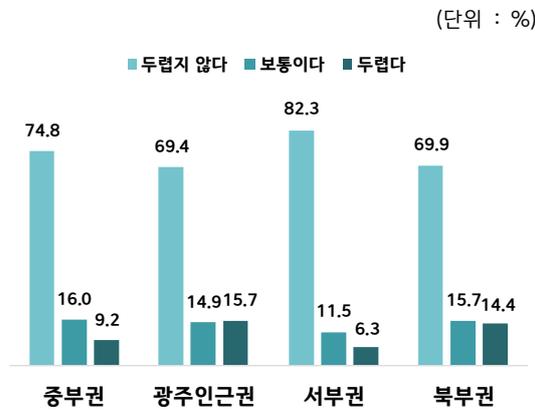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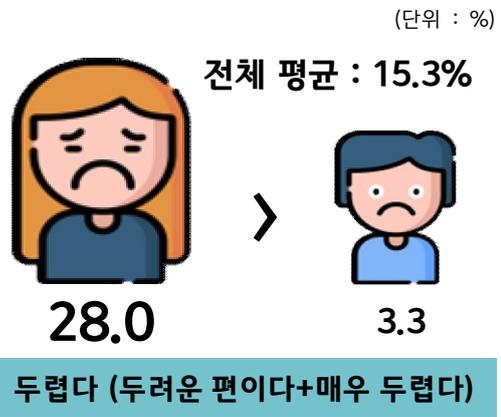
200만원 이상 비율

-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군민은 73.7%로 「두려움을 느끼는」 군민 (11.6%)보다 많음.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군민」은 15.3% 이고, 그 중 남자는 3.3%, 여자는 28.0%로 24.7%p 차이가 남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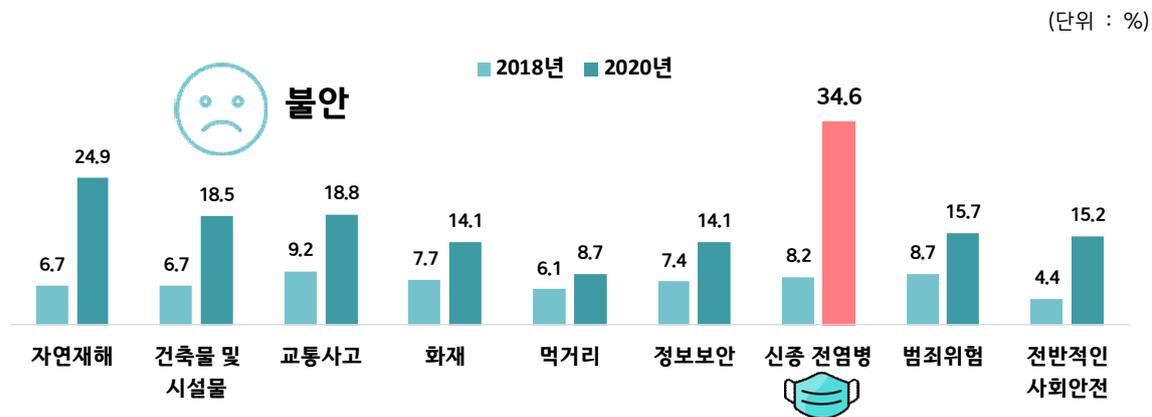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성별) »



- ▶ 안전환경에 대한 군민의 불안 비율은 「신종 전염병」(34.6%)이 가장 높고 「자연재해」(24.9%), 「교통사고」(18.8%), 「건축물 및 시설물」(18.5%) 순으로 나타남. 2018년 대비 2020년 안전환경에 대한 불안 비율은 「신종 전염병」(26.4%p)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인 사회 안전」 비율은 49.7%로 2018년(51.4%) 대비 1.7%p 하락함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불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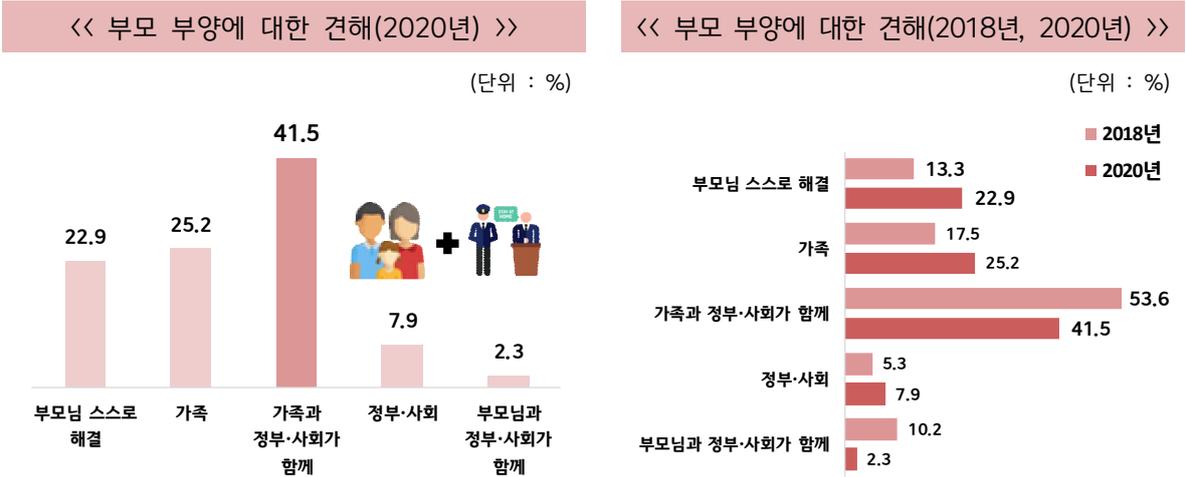
- ▶ 환경체감도 좋음의 비율은 「녹지 환경」(60.7%), 「수질」(57.7%), 「대기」(55.3%) 순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나쁨의 비율은 「소음·진동」(15.8%) 항목에서 가장 높고, 「대기」(13.0%), 「토양」(10.1%), 「수질」(9.2%), 「녹지 환경」(7.1%) 순으로 나타남. 2018년 대비 2020년에 모든 환경체감도 항목의 좋음 비율이 증가함

공통 지표 총괄

- ▶ 군민의 63.7%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음. 월 평균 이용 횟수는 2.4회이고, 이용한 곳은 ‘의원’, ‘병원’이 대부분임. 2020년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2018년보다 만족 비율이 26.3%p 하락하였고, 불만족 이유 중에서는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료인원 확충 및 예약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95.7%이고, 사람 수는 평균 4.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통 비율과 소통 인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노년층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가족, 친척들과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돌봄 시스템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걷는 경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과반수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의 경우 ‘두렵다’의 비율이 28.0%로 남성에 비해 24.7%p 높게 응답함.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으므로 **안심귀가서비스, CCTV 설치 등 밤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은 15.2%로 낮게 나타남. 하지만 항목 중 **「신종 전염병」**의 경우 불안 비율이 34.6%로 다른 항목의 불안 비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18년 대비 26.4%p 큰 폭으로 상승함. 이를 낮추기 위해선 **전염병에 대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등의 다양한 정책이나 백신, 주사 등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지역 환경에 대하여 **‘좋음’의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남**. 특히 **「녹지 환경」**에 대한 좋음 비율이 60.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응답함. 녹지 조성에 대한 정책이 군민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 **2018년에 비해 2020년 모든 환경체감도 항목의 ‘좋음’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장성군의 환경이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음**

3.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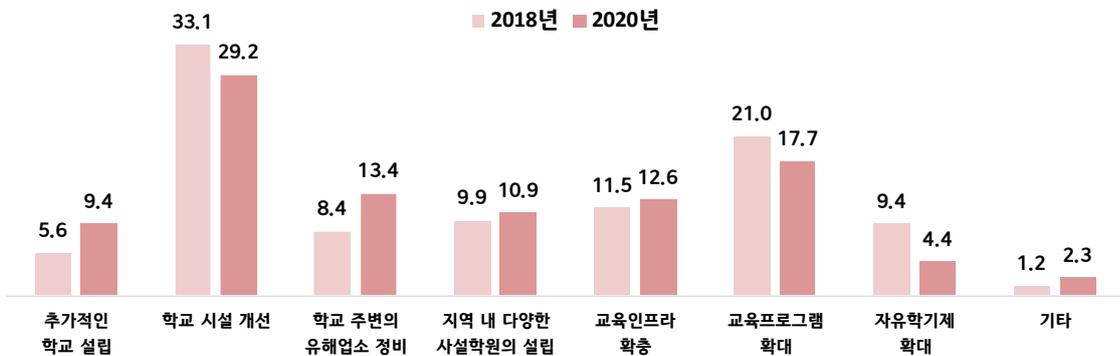
- ▶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음. ‘가족’(25.2%), ‘부모님 스스로 해결’(22.9%) 순으로 나타남. 2018년과 순서가 같지만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53.6%)는 2018년에 12.1%p 높았고, ‘가족’(17.5%), ‘부모님 스스로 해결’(13.3%)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에 상승하는 등 차이를 보임



- ▶ 월평균 소비가 2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8.5%,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71.3%로 나타남. 2020년에 200만원 미만 비율이 2018년의 비율 66.8%보다 4.5%p 증가함. ‘50만원 미만’(27.1%), ‘50만원~100만원’(24.4%), ‘100만원~200만원’(19.8%) 순으로 응답함. 남녀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순위는 ‘식료품비’이고, 2순위는 ‘보건의료비’임
- ▶ 가장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이 22.9%로 가장 높고,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16.6%),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16.4%), ‘창업지원’(14.3%) 순으로 나타남. 취업 관련 문항(‘취업 상담 알선’+‘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개선해야 할 분야는 ‘학교 시설 개선’(29.2%), ‘교육 프로그램 확대’(17.7%),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13.4%)’ 순으로 나타남.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29.2%)이 2018년(33.1%)보다 3.9%p 하락하였으나 2018년과 2020년 모두 가장 응답률이 높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13.4%)이 2018년(8.4%)보다 5.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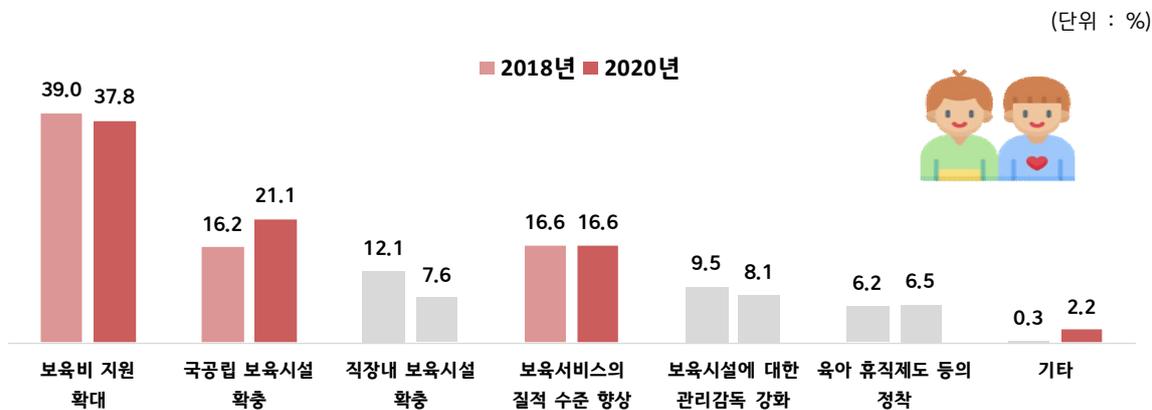


-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은 57.6%로 나타남. 「가정생활», 「직장 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군민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각각 3.7%p, 7.6%p, 8.5%p, 2.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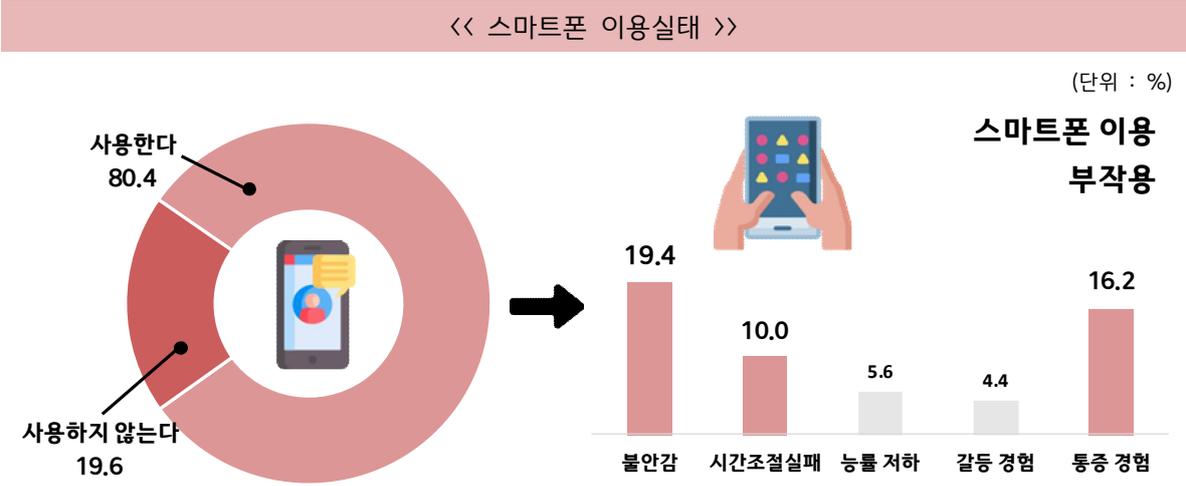
- ▶ 쓰레기 처리 평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모두 3.8점으로 평균 만족도 5점 만점 대비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쓰레기 처리의 불만족인 가장 큰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로 나타났는데, 중부권이나 서부권에서는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 「군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한 응답은 ‘보육비 지원 확대’(37.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21.1%),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6.6%)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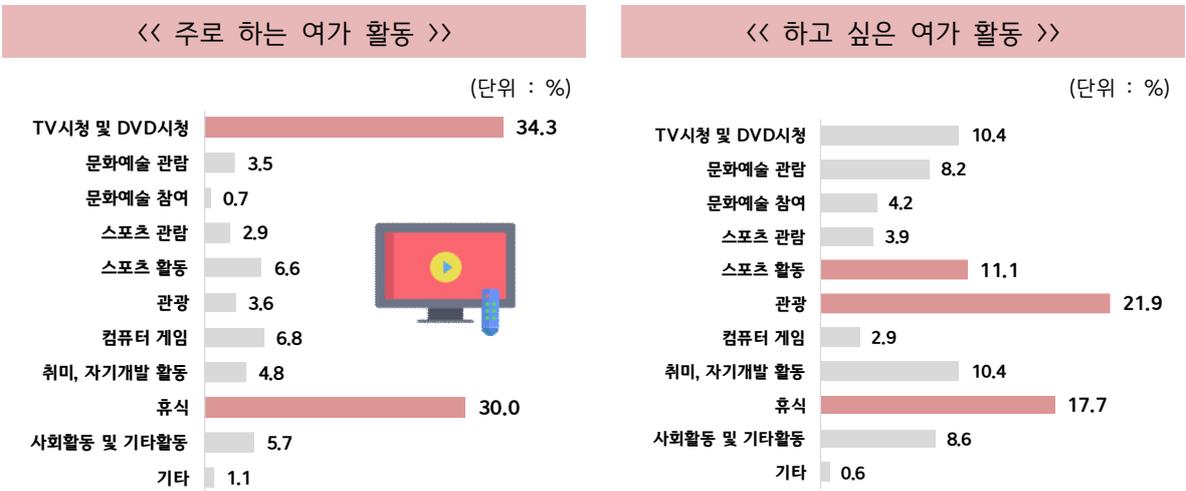


- ▶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80.4%,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19.6%로 나타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 중 부작용을 경험한 군민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한 군민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눈이나 목 등이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각각 19.4%와 1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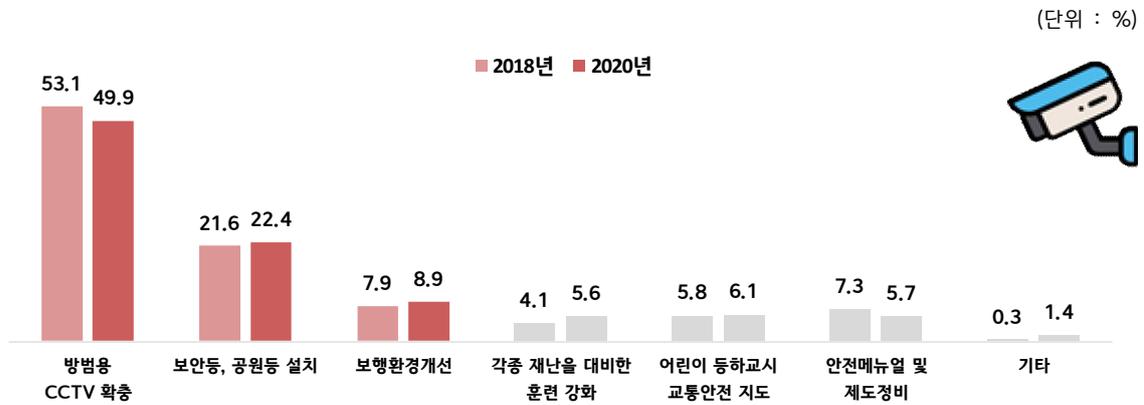
- ▶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군민의 비율은 75.2%이며, 긍정적인 주된 이유는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42.2%)와 ‘주민 화합 기여’(30.3%) 때문임.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군민의 비율은 8.6%이고,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문화행사 개최가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62.3%)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잘 모르겠다’에 대해서는 16.2%로 응답함

-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이 34.3%로 가장 많고, 휴식이 30.0%로 두 번째로 많음.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관광’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고, ‘휴식’ 17.7%, ‘스포츠 활동’ 11.1% 순임



-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용 CCTV 확충’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가 2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18년과 2020년에 동일한 순서의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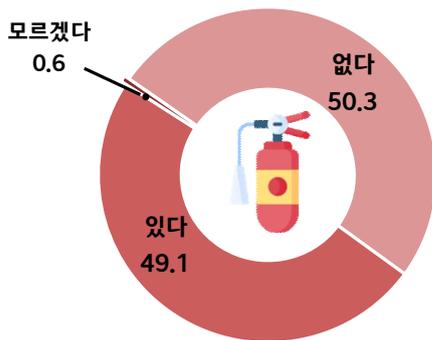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2018년, 2020년) >>



- ▶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은 49.1%,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은 28.0%로 조사됨. 북부권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의 비율이 18.6%로 중부권(31.0%), 광주인근권(33.1%), 서부권(24.0%)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주거 화재 안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군민 중에 설치할 의향이 없는 군민은 60.2%이고, 그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와 ‘비용이 부담돼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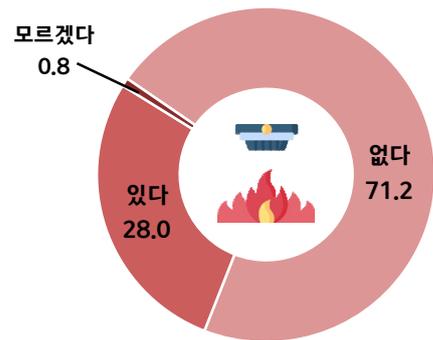
<< 주거 화재안전시설(소화기) >>

(단위 : %)



<< 주거 화재안전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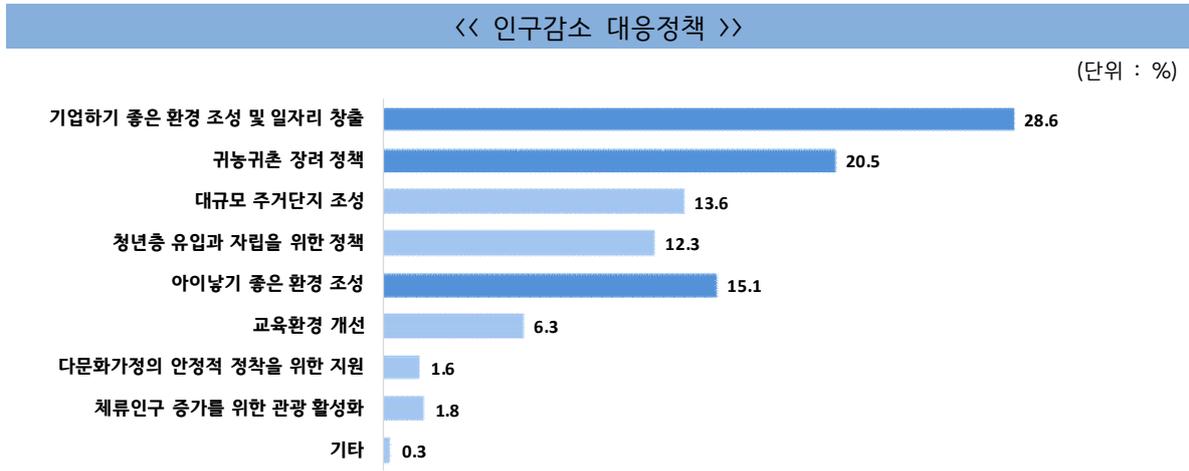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많이+약간)고 응답한 군민은 54.0%이고, 2018년에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의 비율인 57.3%에 비하여 3.3%p 감소한 수치임. ‘보통이다’는 36.2%, ‘가지고 있지 않다’(별로+전혀)고 응답한 군민은 9.8%로 나타남

전라남도 지표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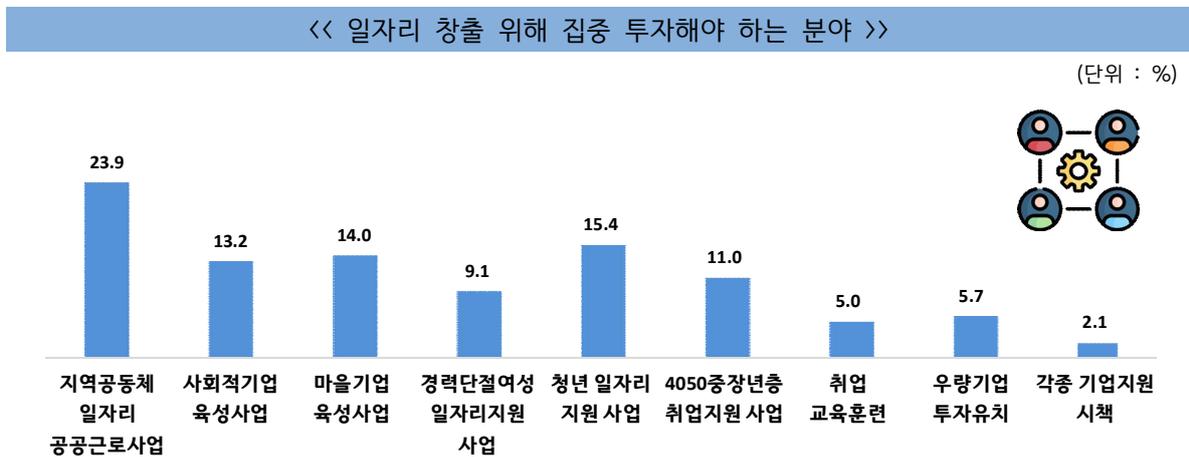
- ▶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고, ‘가족’(25.2%)이나 ‘부모님 스스로 해결’(22.9%) 순으로 나타남.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순서는 동일하고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53.6%)는 2018년의 수치가 2020년보다 12.1%p 높았고, ‘가족’(17.5%), ‘부모님 스스로 해결’(13.3%)에 대한 응답률은 2020년에 더 높게 나타남. **군민이 노후 문제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이 상승했다고 판단** 하며, 이를 반영하여 **노년 인구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이 22.9%로 가장 높고,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16.6%),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16.4%), ‘창업지원’(14.3%) 순으로 나타남. 취업 관련 문항과 청년공간 조성, 창업 지원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룸. 실제 청년에게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응답을 고려함과 동시에, **해당 연령의 사람들의 응답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됨
- ▶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학교 시설 개선’**이 29.2%로 가장 높음. 2018년과 2020년 모두 학교 시설 개선이 1순위인 것으로 보아 교육환경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에 대한 응답률이 2018년에 비하여 2020년에 5.0%p 상승하여 13.4%로 나타남. 설문 응답을 토대로 **군청과 도교육청 간에 논의**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로서, 2018년(39.0%)과 2020년(37.8%)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률이 2018년(16.2%)에 비해 2020년(21.1%)에 4.9%p 높음. 2년 연속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보육비 지원에 대하여 군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정책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야 함
-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과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가 2018년, 2020년 모두 높게 나타남. 군민들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CCTV를 확충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힐 수 있는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줄일 필요가 있음

4. 장성군 특성

- ▶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장성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8.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귀농귀촌 장려 정책’(20.5%),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출산장려, 육아지원)’(15.1%) 순으로 나타남



-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성군에서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이 23.9%로 가장 응답률이 높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15.4%), ‘마을 기업 육성 사업’(14.0%),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13.2%)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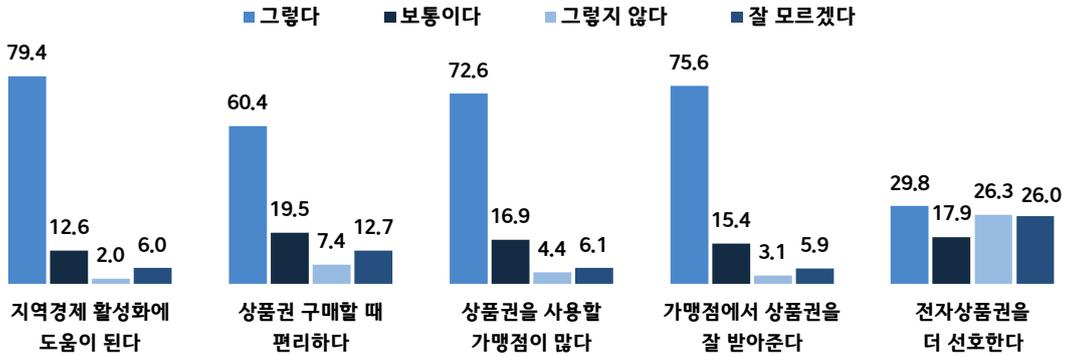


- ▶ 군민이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농축산기자재 등의 5가지 물품을 주로 구입하는 지역은 ‘장성관내’인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 생활용품, 농축산기자재는 80.0% 이상의 군민이 장성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반면, 의류, 가전제품은 광주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30.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음. 타 지역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39.4%), ‘가격이 저렴해서’(18.8%), ‘제품이 좋아서’(18.0%), ‘지리적으로 가까워서’(14.8%) 순으로 나타남

- ▶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민의 87.8%이고, 12.2%가 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79.4%로 가장 많음.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 없는 군민의 이유는 ‘상품권이 발행되는지 몰라서’가 39.4%, ‘장성에서만 사용하므로’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효과와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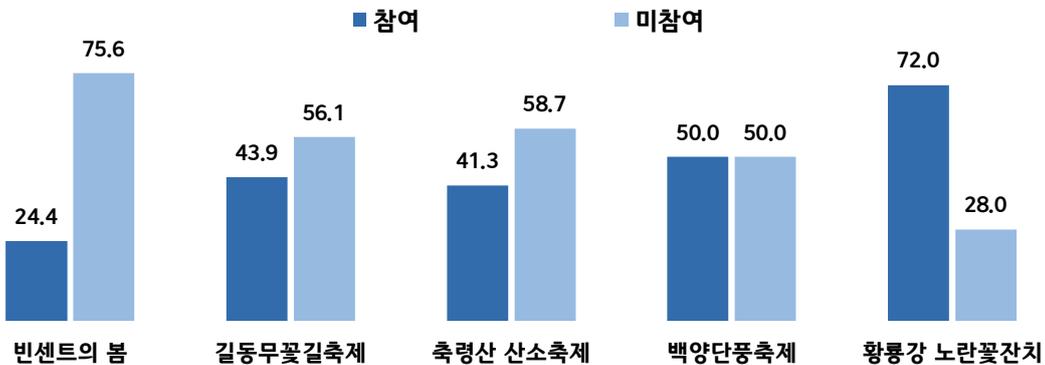


- ▶ 문화체육시설 중 ‘장성문예회관’,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는 군민은 각각 29.5%, 28.7%, 26.3%로 이용 경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용 경험이 있는 군민들은 시설 만족도에 대하여 모두 70.0% 이상으로 높게 응답함. 이용 경험이 없는 군민의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와 ‘거리가 멀어서’가 각각 44.6%, 33.5%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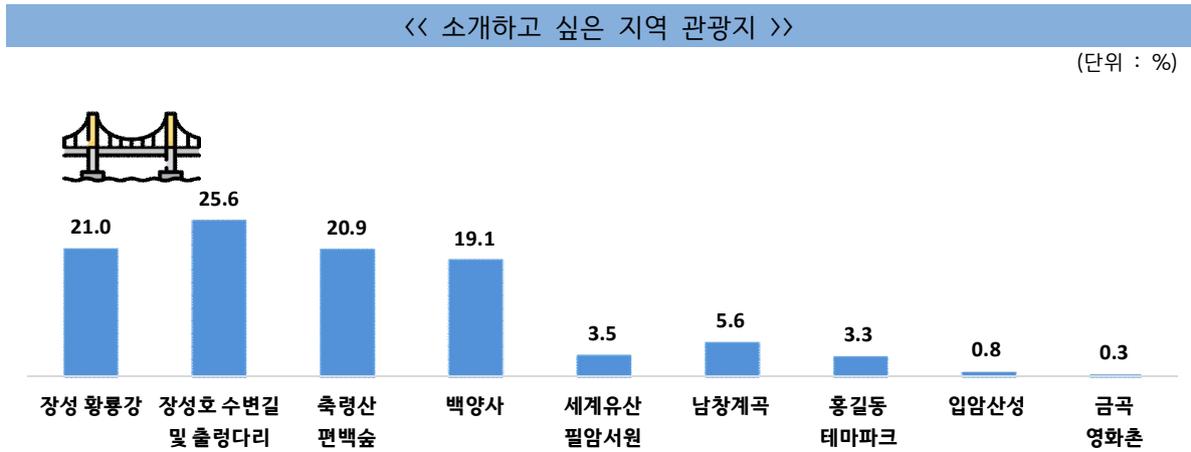
- ▶ 군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 축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72.0%)와 ‘백양단풍축제’(50.0%)로 나타남. ‘빈센트의 봄’의 미참여 비율은 75.6%로 가장 높음. 하지만 지역축제별 만족도는 만족 비율이 60.0%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그 중 ‘노란꽃잔치’의 만족(매우+약간) 비율이 84.0%로 가장 높았음. 장성군의 축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27.0%, ‘주민 주도, 주민 참여형 축제 개최’가 25.0%, ‘축제와 지역명소를 연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20.6% 순으로 나타남

◀◀ 지역축제 참여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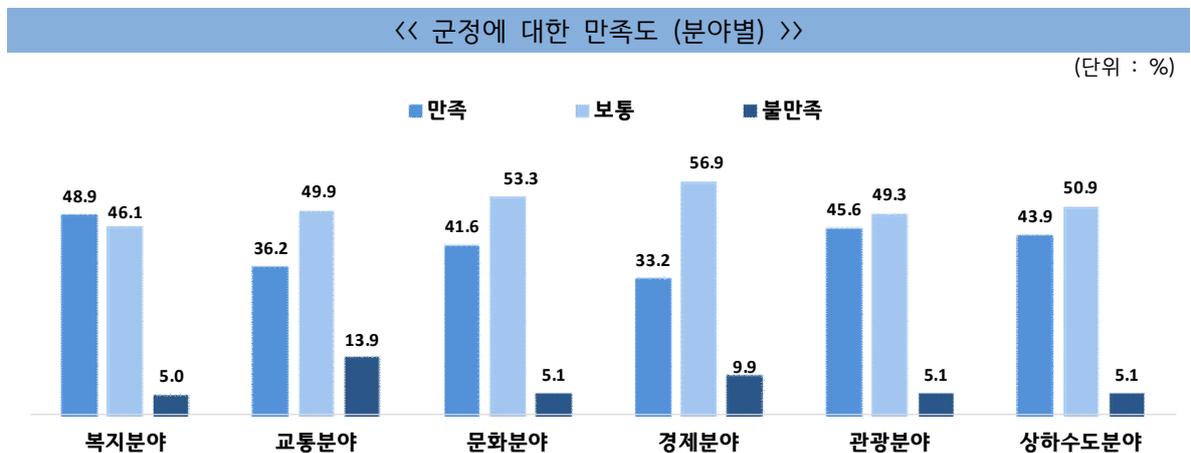
(단위 : %)



- ▶ 「장성을 방문한 손님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 명소」는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가 25.6%로 가장 높고, ‘장성 황룡강’ 21.0%, ‘축령산 편백숲’ 20.9%, ‘백양사’ 19.1% 순으로 조사됨



- ▶ 「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효도권 지원’이 34.1%로 가장 높고, ‘경로당 운영 지원’이 12.8%,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10.3%, ‘치매예방관리’가 9.9% 순으로 응답함
- ▶ 「장성군의 5년 후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매우+다소)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70.4%로 나타나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19.3%, ‘나빠질 것이다’(다소+매우)가 1.5%, ‘잘 모르겠다’는 8.8%로 나타남
- ▶ 「장성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로확장 및 정비’(34.0%)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17.0%), ‘주차시설 확대’(14.4%), ‘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13.7%) 순으로 나타남
- ▶ 「복지», 「문화», 「관광», 「상하수도」분야에서 ‘만족(매우+약간)’이 높게 나타남. 「교통», 「경제」분야에서 ‘불만족(약간+매우)’의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매우+약간)의 비율이 높음



장성군 개별 지표 총괄

- ▶ 군민의 87.8%가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잘 받아준다고** 응답하는 등 **장성사랑 상품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군민의 10명 중 1명 정도는 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응답한 군민의 가장 큰 이유는 **‘상품권이 발행되는지 몰라서’(39.4%)**로 나타남. 장성사랑상품권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품권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상품권 판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 명소는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가 25.6%로 가장 높고, ‘장성 황룡강’ 21.0%, ‘축령산 편백숲’ 20.9%, ‘백양사’ 19.1% 순으로 조사됨.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소식지 등에 지역민의 선호 응답 및 이유를 함께 적는다면 장성을 방문한 타지역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함
- ▶ 장성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도로확장 및 정비’(34.0%),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17.0%), ‘주차시설 확대’(14.4%), ‘버스 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13.7%) 순으로 나타남. 다양한 응답 중에서도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도로 확장 및 정비를 위해 군에서 교통량이 특히 많은 곳, 좁은 도로로 인해 사고가 많은 곳** 등을 조사하여 **우선적인 도로 정비 사업**을 해야 함
- ▶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복지 및 관광 분야를 비롯한 상하수도, 문화 분야에서 만족(매우+약간)의 합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 및 경제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위에서 언급한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면 교통 분야에서의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군민이 ‘알고 있다’(92.9%)고 응답하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노란꽃’이 72.3%로 가장 높았음.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란꽃잔치 성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및 경제효과 창출’**이고, 보완해야 할 분야로 **‘우리군 대표음식 판매와 메뉴 개발’**이 32.4%, **‘TV,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이 30.4%로 높았음. 노란꽃잔치를 즐긴 관광객들의 장성군 식당 방문은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이를 위해 사람들이 옐로우시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란꽃 이미지에 착안한 장성 대표음식 메뉴 개발**과 그 후에 **SNS매체를 통한 노란꽃잔치 홍보마케팅**으로 옐로우시티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